

# GS칼텍스, 미얀마 저소득층에 '쿡스토브'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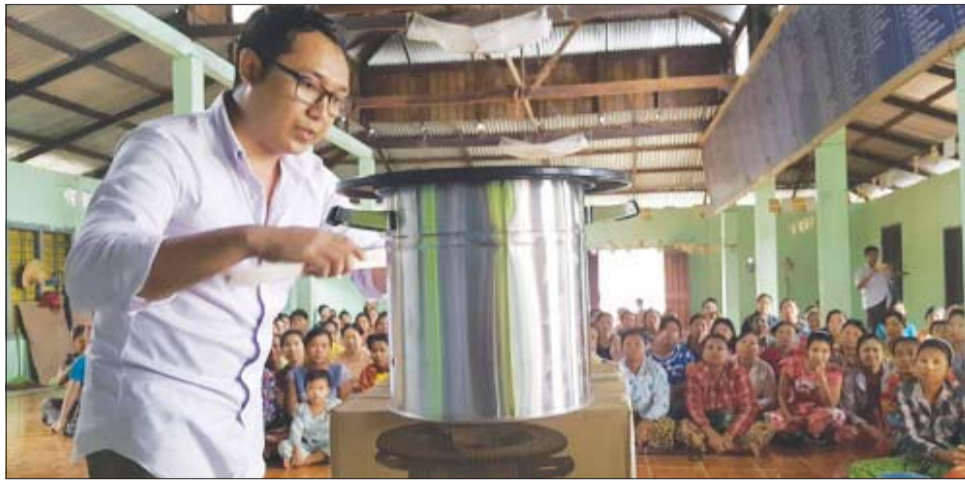
## 저탄소 취사도구 5만대로 환경 보전

GS칼텍스는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얀마 저소득층 가구에 '쿡스토브(Cook Stove)' 5만대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쿡스토브는 미얀마 저소득층 가구에서 사용하는 화로와 비교해 연료비용은 최대 66%, 조리시간은 최대 50%를 감축할 수 있는 저탄소 고효율 취사도구다. GS칼텍스는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가사비용 절감과 가사노동시간 단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쿡스토브 지원사업을 통해 산림 보존과 호흡기 질환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 세계보건기구(WHO) 통계에 따르면 세계 인구 절반에 가까운 30억 명 정도가 나무나 숯 등을 태워 요리하고 있으며 해마다 400만 명 정도가 가정 내 공기오염으로 인해 숨지는 것으로 추산된다.

GS칼텍스는 이번 사업을 통해 매년 5만톤



GS칼텍스 미얀마 쿡스토브 지원사업 파트너인 에코아이 관계자가 쿡스토브 사용법을 미얀마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GS칼텍스

규모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예상, 감축 노력분은 국내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허진수 GS칼텍스 회장은 "쿡스토브 지원

사업을 통해 미얀마 국민 건강증진 및 환경 보전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함은 물론, 회사의 기후변화 대응 강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 걱정되는 '반기업정서'



## 기자 수첩

김재웅 (산업부)

조선 근대화는 한일합방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근거로도 이용됐다. 조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의 간섭에서 벗어나야 하고 부패한 조선 왕조를 몰아내야 한다는 논리다.

21세기 한반도에도 새로운 근대화론이 싹을 틔우고 있다. 재벌을 몰아내자는 주장, 이른바 '반재벌주의'다.

당초 반재벌 정서는 대기업 경영을 혁신하고 사회 분배를 원활하게 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최근 반재벌주의는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변해버렸다. 무조건 재벌을 몰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론을 흔들고 있다.

정말 재벌을 몰아내면 공정한 사회가 올 수 있을까. 현실을 살펴보면 답은 간단하다.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 자본 비중은 30%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52.56%로 절반을 넘어섰고, 현대차도 50%에 가깝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순식간에 외국 기업으로 팔려나갈 수 있다는 얘기다.

외국계 자본 식민화 작업은 이미 가속화한 상태다. '행동주의'로 미화된 헤지펀드가 대표적인 사례다. 소버린 사태 이후 최근에는 엘리엇이 주주 이익을 명분으로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을 방해하며 경영권 간섭을 본격화했다.

헤지펀드는 오직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때문에 경영권을 잡으면 대규모 구조조정부터 벌인다. 사회적 책임에 예민한 재벌 경영과는 다르다.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은 그래서 중요하다. '포이즌 필'이나 '차등의결권' 등이다. 경영권 방어를 위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경영 안정성도 높일 수 있다.

재벌이 자발적인 개혁 움직임도 보인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최근 1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세가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이어지는데도 정당하게 경영권을 상속받았다.

재벌이 밍다고 외국계 자본을 환영해서는 안된다. 조선왕조를 대신한 일본제국은 민중을 더 가혹하게 유린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외국계 기업이 된다면 어떨까. 상상하고 싶지도 않다.

/juk@metroseoul.co.kr

# 현대차그룹 아동학대 예방·근절 위해 앞장

현대차그룹이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지원사업을 강화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9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12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정진행 현대차그룹 사장과 보건복지부장관,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예방 및 근절을 위해 3년간 총 15억원을 지원하는 협약을 맺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협약으로 보건복지부, 경찰청,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지난 4년간 진행한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대상 출동차량 지원사업도 지속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13년 '학대피해아동 안전쉼터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현장출동차량인 '아이케어카' 레이 63대, 코나 7대, 투싼 2대, 스타렉스 6대 등 총 78대와 기존 출동차



(왼쪽부터) 민갑룡 경찰청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현대차그룹 정진행 사장이 아동학대 예방 지원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량 152대의 수리비를 지원하는 등 아동학대에 방사업업을 이어왔다. /양성운 기자 ysw@

## 오늘의 운세 11월 21일 (음 10월 14일) http://www.saju4000.com

- 쥐** 48년생 조연도 사람을 바가며 들어야 한다. 60년생 도움을 줬던 사람이 은혜를 갚으러 온다. 72년생 길 떠나려는데 폭풍우가 치는 격이니 잠시 휴식. 84년생 기쁨과 근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니 마음을 편하게.
- 소** 49년생 상부상조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 61년생 마음이 통하는 사람 만나 거래가 순조롭다. 73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적으나 성과도 적다. 85년생 위장계통이 안 좋을 수 있으니 먹는 것에 주의.
- 호랑이** 50년생 입이 경솔하면 될 일도 안 된다. 62년생 마음이 울적해도 웃으면서 살아야 복이 온다. 74년생 상대에게 가장 큰 복수는 완벽하게 있어 주는 것. 86년생 초대받은 손님으로 환영을 받으니 즐겁다.
- 토끼** 51년생 금전 문제로 속상할 일이 생긴다. 63년생 용이 여의주를 얻은 격이니 뜻한 바를 무사히 달성한다. 75년생 노력한 보답이 주어지니 보람이 있다. 87년생 내키지 않아도 웃어야 하니 서글픈 하루.
- 말** 52년생 깊은 물에 고기가 보이는 법이니 아랑을 베풀자. 64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크게 보고 행동. 76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니 도장은 내일 찍어라. 88년생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선물이 들어온다.
- 뱀** 53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 수 있으니 주의. 65년생 순풍에 돛단배 가듯이 순조로운 하루. 77년생 다정도 병이니 자녀에게 지나친 간섭은 좋지 않다. 89년생 돌아갈 수 없어서 어제가 더 그리다.

- 말** 54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르니 매사에 최선. 66년생 운이 상승하기 시작하니 무슨 일든 시작. 78년생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비는 격. 90년생 꽃이 아름다운 건 잘해야 열을.
- 양** 55년생 남의 말은 사흘을 가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마라. 67년생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는 기쁜 마음으로. 79년생 지금까지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날. 91년생 원하는 대로 풀리니 교만해질까 우려.
- 원숭이** 56년생 이는 길도 물어서 가야 실수가 없는 날. 68년생 남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다. 80년생 멀리서 찾아온 친구가 귀인이다. 92년생 현상 유지만으로도 오늘은 벅찬 하루가 될 수 있다.
- 닭** 57년생 일시적인 감정이 상대의 오해를 살 수 있다. 69년생 아랫사람과의 불화가 의심되니 주의. 81년생 기회가 주어져도 망설이다가 놓칠 수 있으니 결단 필요. 93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평화롭다.
- 개** 58년생 새로 시작한 일에 기대가 많으나 실리는 별로 없다. 70년생 최선의 해결책은 타협하는 것. 82년생 기대를 많이 한다면 노력도 그만큼 하라. 94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이 좌불안석이고 불편.
- 돼지** 59년생 배우자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71년생 굴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니 희망을 버리지 마라. 83년생 강을 건넌어도 배는 소중히 간직하자. 95년생 확실한 거절이 상대방에게도 도움을 주는 것이다.

# SUDOKU

##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6			1		
	5	3					4	
8			4		3		6	5
		6		1		5		2
			5		6			
5		7		3		9		
4	6		2		5			3
	3					6	2	
		9			1	4		

			2	3	5			6
				4				3
	5							
3	6	5			4		7	8
						3	7	
	4				6			
	1	4						9
	2				6		5	4
				8	4			

스도쿠 정답

4	5	8	1	9	6	3	7	2
1	2	9	8	7	5	4	6	3
8	6	5	2	3	1	9	4	7
9	1	6	7	4	8	2	5	3
7	3	9	2	5	8	6	1	4
2	8	5	6	1	3	9	7	4
5	9	1	4	6	7	2	8	3
6	7	2	3	8	1	5	9	4
8	4	1	9	5	7	3	6	2

문제 제공= 보누스

# 김상회의 四季 인생길의 목표를 정하라



인간으로 태어나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일일까.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으로 태어나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인지 생각해본다. 왜냐하면 요즘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세상사를 들여다 보게 되면 참으로 안타까움을 넘어서 존재로서의 인간의 삶의 의미에 크나큰 의문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보다 보면 자연재해로 일어나는 불상사는 물론 인간들의 분노나 화로 인해 일어나는 끔찍한 비극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현재 지구상에 일어나는 자연재해나 천재지변들도 인간들의 편리추구를 위해 지구환경을 훼손한 결과임이 뚜렷하다.

인명 살 상등 잔혹한 범죄 함께 살아가는 공동 가치관의 파괴 갈수록 분노조절 장애라든가 탐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자신은 물론 남들도 끔찍한 고통에 몰아넣고 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하루 이틀 사이에 말싸움으로 칼부림을 하여 아르바이트생의 생명을 잃게 했다. 혼수문제로 여자 친구의 목숨을 해친 일 등 무려 일주일 사이에 아주 가까운 사이의 사람을 살상하고 그 가족들까지 살상을 하는 끔찍한 비극이 4건이나 일어난 것이다. 이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 화를 제어할 수는 없는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의 처음은 모두가 탐욕과 화 어리석음으로 인한 것은 아닐까.

왜 석가모니부처님이 탐진지를 삼독(三毒)이라 하셨는지 알 수가 있다. 사람들은 항상 나의 분노에 나의 화를 붙잡고 있다. 그 뜨거운 불덩이를 쥐고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칼로, 폭력으로 해결하려 한다. 주먹을 놓을 줄은 모르고 분노만 토해낼 뿐 누구하나도 인간으로서의 원래 바른 청정한 마음을 위한 노력들은 없는 것이다. 매스컴의 자극적이며 선정적인 보도들은 자신들의 특종을 위해 앞뒤의 영향은 살피지도 않은듯하다. 그저 파헤치고 알리기에 바쁘며 심지어는 과장까지 하여 두려움을 더 조장하는 경우까지 본다. 무신론자보다 종교 인구가 훨씬 더 많은 대한민국임에도 이런 시대에 종교인들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자괴감에 빠질만한 대목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1721-9800. FAX:021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창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1721-9851, 9826 / 021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08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8호